중생 교화는 평등한 마음으로 하라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㉔ 유마경(維摩經) 2

〈유마경〉을 읽는 내내 나는 유마거사의 '청정한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 라는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청정하다는 것이다.

"어리석음과 탐욕과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내 병이 생겼다. 모든 중생이 병에 걸려 있으므로 나도 병들었으니 만일 모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그때서야 치유된다." 는 말처럼 중생과 고통을 함께하는 보살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항상 부처님처럼 살며,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신명을 다 바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보살, 혹은 불자의 삶은 자비심으로 오로지 중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제자품〉에서 유마거사가 병이 깊어 누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병문안을 갔다가 오히려 유마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가르침을 듣게 되자 더욱 많은 이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정작 부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오지 않자 왜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연민의 마음조차 내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병을 가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병문안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발뺌을 하는데 그 이유는 유마에게 마치 은하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화려한 설법으로 깔끔하게도 한 방에 설복을 당해 이번에도 갔다가 낭패를 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는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자비심이 많은 가섭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해 특별히 가난한 동네만 다니며 걸식하고 설법하였다. 그런 가섭에게 유마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내세워 걸식할 때에도 수행자는 빈부라는 분별심을 내지 않은 무심한 상태로 걸식을 통해 대 자유를 얻어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라 충고했다. 대승의 안목을 지니고 있어야 설법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니 가섭으로선 이 날의 사건으로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란 안목을 성취하게 된다. 중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분별하는 마음 없이 지닌다는 것은 진정한 보살행이 아니면 어렵다. 매사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 이루어져야 가능할텐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나의 의식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금강경〉에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 라 하고, 〈유마경〉에선 '우리는 머무는 바 없이 모든 법을 세운다(無住本入一切法)' 말한다. 무주(無住)에서만 집착하지 않는 무분별의 마음이 가능하다는 유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자유로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여유로움을 지닌 마음을 지녀야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중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불평등한 사랑이지만 보살의 사랑은 평등한 사랑일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의 사랑은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부처님의 사랑은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리라. 사리불이 천녀를 만났을 때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는 조건을 알면서도 왜 몸을 바꾸지 않느냐 묻자. 천녀는 피식 웃으며 유마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최소한 남녀의 차별상을 벗어나야 한다며 순식간에 사리불을 여인으로 바꾸었다가 되돌려 놓는다. 모든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우린 단지 이름이 남자. 여자일 뿐이다.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이 일체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중생을 차별하는 마음 없이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과 미움, 청정과 부정, 중생과 부처님, 번뇌와 해탈 이 모든 것을 벗어나 자유롭게 둘이 아닌 하나로 사랑하는 것, 그런 자비의 마음, 보살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불이(不二) 정신이라 한다.

유마는 법자재보살로부터 문수보살까지 32분의 보살에게 '어떻게 하면 불이법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모두 자유롭게 각자 깨달은 바를 말해보시라!' 고 질문한다. 보살들은 유마와 담론을 통해 가장 불교적인 궁극적인 가르침, 중도, 혹은 절대 평등의 경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진정한 부처님의 안목을 새롭게 정비한다.

32명의 보살들이 나름 불이법문을 설하는 것을 다 듣고 난 문수보살은 이런 논리적 견해보다 직접 체험하라고 말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마는 문수를 향해 묵묵히 침묵한다. 어쩌면 유마의 언어적 유희를 문수가 한 방 날린 것처럼 보인다. 고수 중의 고수인 유마와 문수는 이렇게 우리의 안목을 높혀 놓았던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경 교육은 최상의 교육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㉓ 4차산업 시대 교육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 인공지능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올 때 현재의 인재들은 모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금강경에서 그 대안을 찾으라고 합니다. 탐진치가 본래 착각임을 깨달아 잠재의식의 지혜를 뛰어넘게 되면 인공지능을 제압할 위대한 지혜가 마음속에 존재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의 위대한 보배를 발견하면 물론 생사해탈하는 도인도 되겠지만, 이를 세상에 활용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로, 무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통 사람이 변하여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얻어지는 창의력, 이 사혜를 이용하여 사람들은 뛰어난 사업가가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도 되며, 편리한 기계를 개발하여 생활을 편하게 하는 발명가가 되는 등 능력자가 됩니다.

즉, 사혜는 심사숙고하고 또 연구해서도 얻어지지만, 수많은 잡념 그리고 잡념의 뿌리인 선입견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혜에서 얻어지는 각종 창의력을 부처님께 바쳐서, 한층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지혜가 수혜입니다.

이 수혜는 수도자가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살이에 적용하면 평범한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계정혜(戒定慧)를 삼학(三學)이라 하여 출가자는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공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별심인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치는 행위는 계정혜 삼학 중 계(戒)에 해당합니다.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환희심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삼학 중 정(定)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환희심이라는 분별심, 즉 '나는 행복하다.' 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얻어지는 지혜가 수혜이며 이는 계정혜 삼학 중 혜(慧)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혜를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무지한 사람이 변하여 슬기롭게 되고, 무능한 사람이 변하여 능력자가 된다.' 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또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아도,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 변하여 인재나 영재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교육을 통하여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는 일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그러나 만일 금강경 전문교육기관이 있어 마음속의 탐진치를 닦아 수혜를 얻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무능한 사람이 변하여 인재가 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드러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닦아 지혜가 생기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강경으로 탐진치를 닦는 공부를 하게 되면 국내 최고의 대학 또는 외국의 어떤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의 뛰어난 능력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뛰어난 지혜는 마음 밖이 아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종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13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거짓나' 인 제 7말라식과 '이뭣고'

〈假我〉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든 번뇌는 그 원인이 식심(識心)에 있다고 본다. 또한 중생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지금 이순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떠올려 거기에 매달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거기에 끄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을 비롯한 일체의 구별과 집착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무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식학의 근본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8가지로 구분했다.

△전오식(前五識)=근본식(根本識)(안이비설신)은 아뢰야식에 의지해서 조건에 따라 일어 난다. 이는 파도(전오식)가 물(아뢰야식)에 의지 하는 것과 같다. 즉 전오식은 아뢰야식의 색안경을 통해 바깥 대상을 지각한다. 따라서 심층에 잠재하는 아뢰야식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과 사람의 평가도 제 각각일 수 밖이 없다.

△제 6식(第六識)=사유 능력으로서의 감각 내용들을 총섭하고 개념적으로 사유화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때 오근이 오경(五境)을 각각 포착하여 느끼는 것을 전오식이라 하며, 제 6근이 법경(法境)을 파악하는 것을 제 6식이라고 한다. 전오식 까지는 아직 주객, 자타, 내외, 분별이 없다. 밖의 객관 대상을 내용으로 객관화해 이해하는 것이 제 6식의 단계이다. 제 6식은 우리가 외부 사물을 볼 때, 우리의 의식은 밖의 대상을 '나' 라고 느끼지 않고 나와 따로 분리시켜 외부의 대상을 객관화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이전에 깔린 '자의식' 인 제 7말라식이 작동해 감각 대상을 주체와 구별해 개념화하는 제 6식의 활동을 돕는다.

남에게 화내거나 부정적 말을 하려할 때, 그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 한 생각의 뿌리를 '이 뭣고' 로 잘라 버리는 것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제 7(第七)말라식=말라식은 바깥 대상을 인식하는게 아니고 아뢰야식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 자신에 대해 어리석은 아치,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는 아견(我見),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아만(我慢), 자신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아애(我愛)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아(ego)의 본바탕이며, 바깥 대상과 관계없이 그냥 내면서 떠오르는 번뇌와 분별이고 자의식 이다. 즉 자신의 기억과, 전생의 업식이 바로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일으키고 자아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제 7말라식은 거짓나(假我)이며 에고이즘의 나로서, 우리가 생활속에서 일으키는 화, 성냄,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등 최초의 한생각도 제 8아뢰야식에 전달돼 마치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꺼내 쓰듯이 업장속에 쌓이고 길들여져 익힌 습관들을 여과없이 받아 쓰게 됨으로서 각종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다.

△제 8(第八)아뢰야식=잠복 상태인 아뢰야식의 종자(種子)인 아타나가 제 7말라식의 한 생각으로 의식에 떠오르면 탐욕, 분노, 고락, 선악 등으로 나타난다. 마치 무슨 씨앗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좁쌀 같은 갖가지 씨앗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하나를 끄집어내 물을 주면 싹이 돋아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찰나간에 틈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남에게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려할 때, 그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 한 생각의 뿌리를 '이 뭣고' 로 잘라 버리는 것이 업장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불전부 · 아함부 · 반야부
법화부 · 화엄부 · 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육부 경전정선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대학원에서는 새로 출판된 **〈범본 한글 옮김 근본육부 경전정선 "붓다의 가르침"〉**을 교재로 하여 경전 강독법회를 엽니다.

최봉수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불교원전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을 강의했으며,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번역과 학술적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 강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7시** (제2부 아함경 강좌)
제1강 – 오후 7시
제2강 – 오후 8시 20분

■장 소 :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문 의 : (02)732-1206

■내 용 : **제 2부 아함부 (64강)**
① **2018년 7월, 8월 (16강) : 십이처·십업설 법문**
② 2019년 1월, 2월 (16강) : 육 · 육법설 법문
③ 2019년 7월, 8월 (16강) : 오온 사제설 법문
④ 2020년 1월, 2월 (16강) : 12연기설 법문

■강 의 : 최봉수 교수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사무처: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